

訓民正音研究

姜 信 沆 著

신국판 viii+414 면. 1987. 4. 成均館大出版部

高 永 根

(서울대 교수, 국어학)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로운 문자 생활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더우기 이 문자의 제자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해례」가 저술되었다는 것은 국어학사뿐 아니라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선조 전 시대를 통하여 훈민정음은 학자들의 꾸준한 탐구 대상이 되어 왔고 갑오경장 이후로는 그 열기가 더욱 고조되어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해방 후에는 각급 학교 국어 교과서에 훈민정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형태로 실려있어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 지식 세계 속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다.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는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해례」가 발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도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았으나 예외편만 알려져 있어 제자의 원리나 실제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웠다. 「훈민정음해례」의 발견은 훈민정음의 문자론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15세기의 음운 체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였다. 「훈민정음해례」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홍기문의 「정음발달사」(1946), 김민수의 「주해 훈민정음」(1957), 유창균의 「훈민정음」(1974), 강신항의 「역주 훈민정음」(1974), 서병국의 「신강 훈민정음」(1975), 박병채의 「역해 훈민정음」

(1976), 박 종국의 「주해 훈민정음」(1976), 박 지홍의 「풀이한 훈민정음」(1984), 이 성구의 「훈민정음연구」(1985) 등이 「훈민정음해례」의 번역·주석을 다룬 업적이다. 이 가운데는 단순한 번역·주석의 경지를 뛰어 넘어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것도 적지 않다. 김 민수, 박 지홍, 이 성구의 업적이 그러하다. 홍 기문은 상하로 나누어 상권에는 「훈민정음해례」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정 인지의 “훈민정음서”, 신 숙주의 “동국정운서”, “사성통고법례”, “홍무정운역훈서”, 성 삼문의 “직해동자습서”, 최 만리의 “언문창제반대상소문” 등의 번역·주해를 넣고, 하권에는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하여 15 세기의 어문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훈민정음해례」에 대한 권위 있는 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훈민정음에 관련된 당대 내지 후대의 연구 자료에 대한 역시 권위 있는 번역·주석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를테면 홍 기문의 업적이 그 동안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왔으나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 구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현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번에 얼굴을 드러낸 강 신항 교수의 「훈민정음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간행된 것이다.

이 책은 4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세종조의 어문 정책”과 “훈민정음(해례본)의 해제”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우리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기초로 하여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어문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세종조의 어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①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 ② 외래어음인 조선 한자음의 정리
- ③ 중국 본토 표준 자음의 표시
- ④ 인근 계민족어 학습을 위한 사학(四學)의 장려

훈민정음은 결국 ① 순수한 국어의 표기, ② 개정된 한자음의 완전한 표기, ③ 외국어음의 정확한 표기의 사명을 띠고 창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 훈민정음은 교화와 훈민 정책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사명도 띠고 있었다. 특히 저자는 훈민정음 창제의 사상적 배경으로 유교 중심의 언어관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리대전」의 영향이 컸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오래 전에 “훈민정음해례 이론과 성리대전과의 관련성”(『국어국문학』 26, 1963)을 발표한 바 있다.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주로 해례본의 내용을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중성해, 합자해, 용자해에 걸쳐 내용을 소개·평가하고 있다. 이 곳에는 부록으로 “1. 훈민정음의 이론, 2. 훈민정음 기원설”이 마련되어 있다.

제 2부는 “훈민정음 본문(예의편), 훈민정음 해례(정 인지 서문 포함),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대한 번역·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두 편은 현 대역과 함께 주석이 붙어 있으며 마지막은 주석만 베껴져 있다.

제 3부는 훈민정음과 관련되는 기록들의 번역이다. “최 만리 등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 동국정운 서문, 홍무정운역훈 서문, 사성통고 범례, 직해동자습서, 보한재집내 훈민정음 관계 기사초, 훈몽자회 인(引)과 범례”를 먼저 해설을 붙인 다음, 원문 제시와 함께 주석을 달고 이어 번역을 베꼈다. 마지막 두 편은 홍기문의 「정음발달사」에도 없던 것이다. 사성통해 범례의 번역도 결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 4부는 저자가 그 동안 지상에 발표한 3편의 훈민정음 관련 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조선 초기 불경 언해 경위에 대하여”(『국어연구』창간호, 1957)는 세조조의 불경 언해 사업이 세조의 강력한 왕권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당시의 지배 계급인 지식 계층과 분리된 사업이었음을 실록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밝혀 내고 있다. 저자의 20대 후반의 업적이다. “용비어천가의 편찬 경위에 대하여”(서울대 『文理大學報』 6.2, 1958)는 용비어천가의 간행 연대를 세종 27년(1445) 4월로 잡던 종래의 견해를 수정하여 세종 29년(1447)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 곳에는 용비어천가의 한문 가사가 먼저 지어지고 국문 가사는 나중에 지어졌다는 사실도 지적되어 있다. “연산군의 언문 금압에 대한 삽의”(『진단학보』 24, 1962)는 연산군이 신문자 훈민정음을 박해한 최대의 반역자라는 종전의 견해에 회의를 품고 이를 시정하

는 뜻에서 쓰여진 것이다. 연산군의 언문 금압이 국문 보급을 위촉시킨 것이 아니며 그것이 지연된 원인은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유학자들의 반대와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편의 논문 전부가 종래의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 끝에는 1945년 이후의 훈민정음 관계의 주요 참고 문헌이 정리되어 있고 훈민정음 원본이 영인되어 있다. 영인 상태가 깨끗지 못한 점이 아쉽다. 예의의 첫 두장은 보사시의 잘못으로 틀린 데가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안 병희, 訓民正音解例本の復元に 대하여, 「국어학신 연구」1986).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다 완전한 자료를 붙일 것을 요망한다.

저자 강신항 교수는 처음부터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 국어학사 연구에 전념하여 이 방면에서는 거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국어학사」(개정판, 1979)는 저자의 연구 결과가 체계화된 것이며 「운해훈민정음 연구」(1967), 「사성통해연구」(1973), 「이조시대의 역학자와 역학정책」(1978)등도 저자의 집념어린 국어학사 관계의 무게있는 업적이다. 한마디로 저자의 「훈민정음연구」는 30년에 걸친 조선조 국어학사 내지 중국 운학 관계의 업적이 기초가 되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저서에는 지금까지의 이 방면에 대한 학계의 성과가 무리없이 종합되어 있다. 해례본 발견 이후 훈민정음에 관한 업적이 많이 나왔지만 이 저술만큼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연구된 것이 달리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훈민정음 연구의 표준 저술로서 누구든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가치가 오래 유지되리라 생각한다. *

